

# 한국 청년가계의 부실화 가능성 연구\*

Studies on Insolvency Prediction for young Korean debtor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조 교수 이종희\*\*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Lee, Jonghe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solvency likelihood of young debtors from the 2018 Household Financial and Welfare Survey . This study used the Household Default Risk Index (HDRI), which considers the ratio of total debt to total assets (DTA), and a total debt service ratio (DSR) to examine the insolvency level of debtors. The descriptive analyses showed no difference in frequency of households with a high probability of insolvency between those less than 35 years of age and those over 35 years of age. However, the median HDRI value for those less than 35 years of age was higher than those over 35 years of age. The multivariate analyses indicated that educational expenses for young Korean debtors was a factor that increased their probability of insolvency, while income was the only variable that decreased their insolvency likelihood.

**Key Words**: 청년 차입자 (young debtors), 자산대비 부채비율 (total debt to total assets ratio), 원리금상환비율 (total debt service ratio), 가계부실 위험지수 (Household Default Risk Index), 가계금융·복지조사 (Household Financial and Welfare Survey)

## I. 서론

최근 한국 가계부채의 큰 특징은 지속적인 누증과 빠른 증가이다. 2007년 말 630조원이었던 가계신용

은 2018년 현재 1,444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나라지표, 2018),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치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지속과 부동산 거래

\* 본 연구는 계명대학교 비사(신진)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주저자: 이종희(jongheelee@gw.kmu.ac.kr)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으로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이어졌으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상회하면서(금융위원회, 2017a), 2017년 말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160%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윤성훈, 2018). 한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디레버리징 과정을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한 결과이다(한국은행, 2017).

한국의 지속적인 가계대출 증가 상황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2017a)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여 실물자산도 증가하였으며, 소득 4·5분위 부채 점유율이 70% 수준에 이르는 등 가계상환능력이 양호하므로, 한국의 가계부채 누증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이러한 증가세를 지속할 경우 가계 상환부담 증가로 이어져 소비,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MK증권, 2017). 실제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7.3%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a).

최근 경제악화와 취업 난 속에 청년층의 부채규모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계부채의 총량을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살펴볼 경우, 40대의 가구당 부채 보유액은 9,896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로 50대, 30대, 60세 이상, 30세 미만 순이었다. 그러나 가구 특성별 평균부채와 구성을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금융부채 비중은 낮아져, 30세 미만인 가구는 금융부채 비중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a). 또한 청년층의 경우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은 노년층 혹은 중장년층 보다 낮으나 실물자산대비부채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2018).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한국의 청년 차입자들은 최근 들어 심화된 고용부진과 함께 주택관련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며, 가계부

채 건전성이 더욱 취약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청년층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는 청년층 가계의 경제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청년부채의 증가는 그들의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 신용거래 이력의 미비로 낮은 신용등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노혜민·손상희, 2017), 신용이 악화된 청년층의 경우라면 제도권의 금융을 이용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에 놓이게 되어 채무악순환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실제로 청년층 중 13%는 은행이 아닌 캐피탈·카드사 등 고금리 금융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연체 경험자 중 약 32%가 금융채무불이행 등록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 2017b).

전술한 바와 같은 청년 부채의 특징과 청년 부채의 양적 증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차입 가계의 부실 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거시총량자료를 사용하는 대신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된 '가계금융·복지조사' 라는 미시가구자료를 이용하여 청년 차입자의 전반적인 부실화 정도를 조망한다. 둘째, 청년 차입자의 부실화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계의 부채상환여건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지표를 활용하고, 청년차입자의 부실화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가계의 재정관련 정책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년층의 부채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와 저축에 대한 전통적 이론인 생애주기가설 (Life Cycle Hypothesis) (Ando &

Modigliani, 1963) 에 의하면 소비 주체인 가계는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맞추어 여러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한다. 청년층은 생애주기적 특성상 재무적으로 독립을 시작하며, 그 과정에서 신용사용을 경험하게 된다(노혜민·손상희, 2017). 또한 주택 마련을 위한 부동산 매입 등의 이유로 차입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계층이다. 차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의하여 보유하게 된 거친 부채는 청년 차입자의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켜 가계부문의 유동성제약을 완화시켜, 청년 차입자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차입자의 입장에서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수준의 부채를 보유하게 된다면 부채상환이 어려워지거나, 심각한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30세 미만 청년 가구주의 부채가 86% 늘어나는 등 청년들의 빚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현대경제연구원, 2018). 이렇듯 청년층의 부채건전성이 악화한 것은 계속된 취업난에 개인이 소비나 저축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여건이 지속(현대경제연구원, 2018)되는 점이 한 원인일 수 있다. 또한 2016년 6월 기준 학자금 대출 잔액은 11조8000억 원으로 2011년 대비 약 2배가 증가하였고, 5년간 1인당 부채규모는 88%나 증가하는(아시아경제, 2018) 등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부담이 크게 증가한 점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한편으로 고용부진으로 구직에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생활비를 위한 대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층의 경우 평균 부채의 양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크지는 않으나, 최근 들어 부채규모의 변화율이 크고, 실물 및 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아서 다른 연령대에 비교하여 소득변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실제로 가계부채가 저소득층,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연합뉴스, 2018)에서 고용부진과 소득측면에서 취약한 청년층의 부채부실화에 대한 진단과 이에 기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2. 가계부채 위험 집단의 분류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대출금리 인상과 같은 외부충격이 지속될 경우 취약한 집단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부실위험가구', '취약차주' 등이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된다. 이들 집단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부실위험가구'는 원리금상환의 부담이 크고, 부채상환이 어려운 가구인데,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다. 한국은행(2016)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제안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넘는 가구이다. 이 지수는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취약한 차입 가계를 판정할 수 있다. 가령 가계대출을 통하여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이라는 자산을 보유하게 되므로, DTA는 낮을 수 있지만 부채상환액이 높아서 DSR이 높게 되어 HDRI가 100을 초과할 수 있다. '부실위험가구'는 원리금 상환이 어려우며, 실물자산을 매각하지 않고서는 부채의 상환이 어려운 가구를 의미한다. 특히 가계부실위험지수(HDRI)와 같은 종합적 지표는 개별적인 지표가 갖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가령 자산 대비 부채비율 (DTA)과 같은 저량 지표는 가계의 부채 부담이 금융위기로 비화하는 시점을 단기적으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원리금상환비율 (DSR)와 같은 유량지표는 가계부채의 절대수준을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저량의 측면에서 볼 때 가계부채의 절대수준을 분석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인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자산의 유동화를 통하여 소비평활화가 가능한지 정도를 측

정할 수 있다(남상호, 2015). 한편 유량의 측면에서 볼 때 가계가 가계소득 감소, 금리 인상 등과 같은 현금흐름과 관련된 위험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김철중, 2013). 이런 분류에 따라 부실화위험이 높은 가구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수(1,090.5만 가구)의 10.3%에 해당하는 112.2만 가구이며, 이들이 보유한 위험부채는 약 14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2015).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 하위 7~10등급인 저신용자이면서 소득하위 30%의 저소득자인 개인을 뜻한다. 저소득자, 저신용자, 다중채무자의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만큼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인식된다. 2018년 현재 취약차주는 약 149.9만 명 정도이며, 이들의 대출규모가 12.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행은 금리 상승 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한국은행, 2018).

### 3. 가계부채 관련 변수

가계부채 관련 선행연구들은 크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를 분석하거나 미시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를 분석하는 식으로 나눌 수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정부재정통계 체계(PSDS,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이 체계는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단위의 총부채를 활용하여 부채통계를 작성하는 식이다(정성호, 2017). 이러한 정부재정통계 체계를 이용할 경우 공공부문 단위의 부채와 금융자산 등의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만기별, 표시통화별, 이자율 유형별, 채권자 거주지별로 부채상품을 구분하여 전전한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해준다(정성호, 2017). 이러한 거시적 접근을 따르는 선행 연구들은 주로 가계부채와 가처분 소득 및 GDP 증가율과 같은 거시총량지표를 비교하거나 소득대비 부채비율의 증감에 관심을 갖고 그

원인을 거시적, 제도적 측면에서 규명한다(김우영·김현정, 2009). 가령 일부의 보고들(e.g. 현대경제연구원, 2018)은 청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로 평균적 의미의 거시지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거시총량 수준으로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세를 확인하는 것은 대출의 질적 저하가능성이거나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가계부채문제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박연우·허석균, 2018). 또한 이러한 경우 차입가구만을 별도로 분석하거나, 다양한 사회경제학적 요인들을 통제하여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부채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평균적 의미의 거시총량지표를 이용하기 보다는 취약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부실 현실화 및 실물시장으로의 위험 전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7).

미시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가계부채 보유여부나 부채규모 결정요인 분석에 중점을 둔다. 김우영과 김현정(2009)은 한국노동패널자료(2000-2007년)를 이용하여 한국가계의 부채보유 확률, 부채규모, 소득대비 부채비율 등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가계의 부채보유 확률은 45세 이후 감소하고 부채규모는 55세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으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증가하거나, 자영업가구일 경우, 교육비의 부담이 증가할수록 부채보유 확률 및 부채규모가 증가하였다. 환경적인 변수로 부동산가격 상승이 부채보유 확률 및 부채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아(2010)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이용하여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자산은 부채에 정적효과를, 금융자산은 부채에 부적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주택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자산을 소유할 경우, 부채규모 및 부채보유확률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종사상의 지위 등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변수가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연우와 허석균(2018)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4)를 활용하여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결정요인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구주 연령, 직업의 종류, 자가 보유여부, 소득, 순자산 등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연구결과 소득 및 자산은 전반적으로 DTI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가 보유 및 자영업자인 직업군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자영업자, 고령계층 중 순자산이 낮은 계층의 가계가 취약계층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동진과 한진현(2017)은 가계의 종합적인 부채상환여건을 반영한 과다부채 가계를 정의하고 이러한 가계의 특징 및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과다부채 가계는 소득탄력성 및 부동산탄력성이 다른 가계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하위 소득계층 및 고연령층의 부채비용은 다른 가계보다 높아서 이들 집단의 부채상환 리스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수와 박창수(2018)는 가계 표본을 DSR 40% 또는 DTA 70%를 기준으로 일반가계부채 가구와 한계가계부채 가구로 나누고, 두 집단의 연체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2016년) 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 두 집단에서 '동거가구'가 연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종희(2018)는 가계금융복지조사(2016년)를 활용하여 자산부채 부채비율(DTA)과 원리금상환비율(DSR)이 임계치를 초과하는 취약가계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자가 소유, 금융 자산 및 실물자산 규모는 가계의 부실화가능성을 낮추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렇듯 특정 지표들을 이용하여 가계부채 위험가계를 판별하는 경우 부채위험 관련 지표들이 실제 가계부채를 규제하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부채관련 정책들과 연관된 현실성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이동진·한진현, 2019).

전술한 가계부채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청년 차입자의 가계부채부실화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첫째, 거시총량 수준으로 가계 부채를 분석하는 것은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가계부채문제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최근의 가계부채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입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미시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계수준의 미시 가계자료를 활용하여 부채 부실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둘째, 가계부채 위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다양하며, 각 지표들이 사용되는 목적도 다양하다. 가령 DTA와 같은 지표를 활용하면 가계의 자산으로 가계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가계부채의 절대수준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 DSR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면 소득 감소, 금리 인상 등 가계가 현금흐름관련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 및 취약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식이다(김현정,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종합적인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합성합수지표를 활용하여, 차입자의 부실화 정도를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청년층의 평균 부채의 양은 다른 연령대에 비교하여 크지는 않으나, 최근 들어 부채 증가율이 높고, 전체 가구의 부채 중 이들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실물 및 금융자산 대비 부채가 많아 소득변동 및 금리변동에 더 취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부채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미시가구자료 및 합성합수지표인 가계부실 위험지수(HDRI)를 활용하여, 부채부실화 위험이 높은 취약 청년층 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로 설정한다. 첫째, 청년 차입자의 전반적인 부채 부실화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청년차입자의 부실화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가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계 부채 부실화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표를 연구에 활용한다.

#### 2. 연구자료

본 연구는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미시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다. 이 조사는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고자 조사된 자료이다. 조사단위는 전국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표본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통계청, 2018b). 본 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획득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다. 조사실시 기간은 2018년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이었다(통계청, 2018b).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가계부채 부실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계의 소득, 금융, 실물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계부실위험지수 (Household Default Risk Index; HDRI)를 계산하여 활용한다. 설명변수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설문 내용 중 생활실태, 자산실태 부문에서 선정한다. 본 논문은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가계를 청년층 집단(19세이상 35세 미만)과 비청년층 집단(35세 이상)으로 구분한다.

#### 3. 변수정의

##### 1) 청년 차입자

기존의 연구에서 ‘청년’은 다양한 연령으로 정의된다. 실생활에서 통계청은 15~29세의 남녀를 청년

으로 간주하며,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19-39세까지의 남녀를 청년으로 규정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19-45세의 당원을 청년당원으로 규정하는 등 상황에 따라 연령 범주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최효미 외, 2016). 김재원·권순만(2014)은 고용불안정이 청년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의 대상을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군 가운데 고용불안정에 더 많이 노출되는 35세 미만의 대상으로 청년층을 정의하였다. 최근 신윤정 외(2015)는 사회적 정의로 생애 이행단계인 청년기 상태에 있는 자를 청년으로 정의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기존 29세 청년의 범주를 뛰어넘어만 34세의 청년으로 포괄하였다. 최근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상한선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조정하였다(문화일보, 2018). 이러한 경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조사대상자를 ‘청년’으로 정의한다. 한편 차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용한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및 외상·할부를 보유한 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청년 차입자’는 차입 가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용한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및 외상·할부를 보유한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조사대상자로 한정된다.

##### 2) 종속변수

본 연구는 청년차입자의 가계부채 부실화 정도와 부실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계부채 부실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채관련 지표로 자산부채 부채비율(DTA)과 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함께 활용한다. 즉, DSR와 DTA 두 기준지표의 합성합수형식을 사용하여, 가계의 소득, 금융, 실물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계부실위험지수 (Household Default Risk Index; HDRI)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자산부채 부채비율(DTA)은 총자산 중 가계부채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을 통하여 가계부채의 절대수준이 많은지를 분석하여 가계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소비의 평활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각 지표에서 사용된 계산식 및 임계치는 선행 연구(한국은행, 2015)를 참조하였다. DTA 임계치는 총부채가 자산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인 100%로 설정하였다. 한편 원리금상환비율(DSR)은 처분가능소득 중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부담 정도에 따라 채무상환의 요구가 집중될 경우 실물자산의 처분 없이는 단기간에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가구(송완영, 2017)를 식별할 수 있다. DSR의 임계치는 40%로 설정하였다. 부실위험지수(HDRI)는 DTA의 임계치와 DSR의 임계치를 합성하여 계산되며, 둘 중 하나의 변수의 임계치 수준을 초과할 경우 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의 값을 갖는다. 이러한 합성함수형식의 종합적 지표를 활용하여 가계부채의 부실화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기존의 단일한 판정지표를 활용하여 가계부채 부실화를 판단하는 연구방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한국은행, 2015).

### 3)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청년 차입자의 부실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무적 특성을 연구모형에 포함한다.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가족원의 수, 직업을 포함한다. 가계의 재무적 특성으로는 가계의 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소득, 자산, 지출 및 입주형태를 포함한다. 주로 가계의 자산이 중장기적인 부채의 상환능력 지표라면 소득은 비교적 단기적인 지표로 볼 수 있다(이동걸 외, 2013). 자산총액은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을 합한 금액이다. 여기서 실물자산은 부동산과 기타실물자산을 포함하며, 금융자산은 저축액+현거주지전월세보증금을 포함한다. 가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을 포함한다. 가계지출은 소비지출(생계를 위해 상품 혹은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비용)과 비소비지출(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가구 간 이전지출 등에 사용되는 비용)도 구분하여 포함한다. 자산, 소득, 지출의 경우 정규분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로그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 4. 분석모형

청년차입자의 부실화가능성 모델은 아래의 <식 1>과 같이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이용한다. 이항로짓모형은 다양한 분야에서 분류 및 예측을 위한 모델로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분석은 독립변수의 정규분포 가정이 만족하지 못한 경우나 독립변수들이 범주형과 연속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배장섭, 2003). 이 분석은 선형 회귀 모형의 단점을 개선시킨 모형으로 로지스틱 변환(logit transformation)을 고려한 분석 기법이며, 어떤 사건에 대하여 발생여부를 직접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기법이다(장재민·이승봉·이영인, 2018). <식 1>에서  $y$ 는 종속변수이며,  $x_1, x_2, \dots, x_p$ 는 설명변수이다. 즉, 청년 차입자의 가계부채 부실화 발생 사건을  $y$ 라고 가정할 경우 부채부실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년 차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재무 특성은 설명변수인  $x$ 로 나타낼 수 있다. 설명변수  $X$ 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원의 수와 같은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무적 특징이다.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보기 위하여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자산과 입주형태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입주형태를 연구의 모형에서 제거하였으며, 그 외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통계량(VIF)값이 모두 10보다 작으므로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 1>을 통해 odds 와 log odds를 유도할 수 있다(<식 2>참조). odds는 이항선택에 있어 한 사건에 일어나지 않을 경우 대비 사건이 일어날 확률

비로 해석할 수 있다 (유재술·안정근, 2013).

$$y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epsilon, y = \begin{cases} 1 & \text{if } y > 0 \\ 0 & \text{otherwise} \end{cases} \quad \text{〈식 1〉}$$

$$\log \frac{p(y = 1|x_1, \dots, x_p)}{1 - p(y = 1|x_1, \dots, x_p)} = \alpha + \beta_1 x_1 + \dots + \beta_p x_p \quad \text{〈식 2〉}$$

#### IV.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재무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체조사대상자는 18,640이며, 전체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19세부터 107세이다. 19이상 35세 미만의 청년응답자는 1,261명이다. 본 연구의 연구모델에서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가구주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입주형태이며, 재무적 특성 변인은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과 같은 자산과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소비와 저축에 이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가처분소득, 그리고 가계지출이다. 가구주의 성별로는 35세이상 가계의 약 75.6%, 청년가계의 약 73.4%가 남성 가구주이었다. 혼인상태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67.8%가 기혼이었으며, 약 5.9%는 미혼이었으며, 청년층의 경우 약 51.3%가 기혼이며, 약 46.2%가 미혼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약 58세이었으며, 청년가계의 경우 평균 약 30세이었다. 35세 이상 가계의 학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재무적 특성

(단위: %, 세, 원)

변수		35세 미만 청년 가계	35세 이상 가계	χ <sup>2</sup> (t-value)
		(N=1,261)	(N=17,379)	
		빈도(%) / 평균	빈도(%) / 평균	
성별	남성	73.43	75.58	2.92
	여성	26.57	24.42	
혼인 상태	미혼	46.23	5.94	2519.42***
	기혼	51.31	67.79	
	사별/이혼	2.46	26.26	
연령(세)		30.35	57.91	-72.14***
학력	중졸	1.20	31.12	889.85***
	고졸	20.73	32.25	
	대졸	23.61	8.92	
	대졸이상	54.38	27.71	
직업	상용근로자	72.74	36.59	636.78***
	일용근로자	7.55	12.80	
	자영업자	10.87	23.90	
	기타	8.83	26.71	
입주 형태	자가	26.25	64.69	755.85***
	전세	34.42	14.55	
	월세/기타	39.33	20.76	
가족원수(명)		2.23	2.63	-11.04***
가처분소득(원)		38,002,000원	44,213,000원	-4.89***
지출(원)		18,345,000원	22,085,000원	-4.19***
비소비지출(원)		7,282,000원	10,033,000원	-4.47***
소비지출(원)		11,062,000원	12,052,000원	-1.98*

\*p<.05; \*\*p<.01; \*\*\*p<.001



력수준은 고졸은 약 32.2%이었으며, 대졸 및 대졸이상은 약 36.6%이었다. 청년가계의 경우 약 20.7%가 고졸이었으며, 약 77.9%가 대졸 및 대졸이상이었다. 직업의 경우 35세 이상 가계의 약 36.5%는 상용근로자이었으며, 청년가계는 약 72.7%가 상용근로자이었다. 거주형태로는 35세 이상 가계의 약 64.7%, 청년가계의 약 26.2%가 자가로 소유하고 있었다. 가처분소득의 경우 35세 이상 가계는 약 4421만원, 청년가계는 약 3800만원이었다. 가계지출의 경우 35세 이상 가계는 약 2,208만원, 청년가계는 약 1,834만원이었다. 결론적으로 청년가계는 전체조사대상자와 비교하여 혼인상태로는 미혼, 학력으로는 대졸 및 대졸이상, 근무형태로는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형태로는 자가에 비하여 전세 및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과 지출 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집단에 따라서 해당되는 응답자의 비율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 및 t-test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부채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부채와 관련하여 가계부채 보유율(금융대출 혹은 임대보증금을 갖고 있는 가계의 비율)과 가계부채 점유율(전체 가계부채 중 해당 집단이 보유하는 부채의 비율)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전체가계의 60.0%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35세 미만 조사대상자의 경우 약 63.4%, 35세 이상의 조사대상자의 경우 약 59.8%가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35세미만 조사대상자의 부채보유율이 그 외 연령대의 조사대상자의 부채보유율보다 높은 편이었는데, 카이제곱 결과 35세 미만 조사대상자와 다른 연령대 35세 이상 조사대상자 간 유의수준 5%에서 가계부채 보유율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계를 차입 가계라고 정의한다. 한편 가계 부채와 자산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35세 미만 조사대상자가 보유하는 가계부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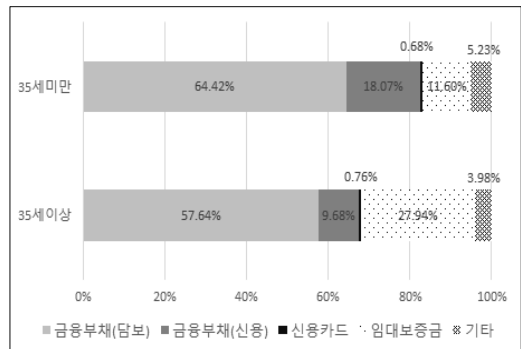
전체 가계부채 중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5.01%이었으며, 약 94.9%의 가계부채는 35세 이상의 조사대상자에 의하여 차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가계부채 보유율 및 점유율

(단위: %)

	35세 미만 청년가계 (N=1,261)	35세 이상 가계 (N=17,379)	전체 가계 (N=18,640)
부채 보유율	63.44	59.76	60.01
부채 점유율	5.01	94.99	100.00

<그림 1>은 부채 유형별 구성비를 나타낸 결과이다. 차입자의 부채유형을 살펴보면 35세 미만 청년차입자의 경우 금융부채의 비중이 35세 이상의 차입자들 보다 높았으며, 임대보증금은 35세 이상의 차입자들 보다 낮았다. 또한 35세 미만의 청년차입자의 경우 신용카드의 사용 비중이 35세 이상의 차입자의 비중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았다. 반면, 임대보증금의 경우 청년차입자는 35세 이상 차입자의 절반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부채 유형별 구성비

조사대상자의 자산관련 비율을 <표 3>에 제시하였다. 35세 미만 조사대상자의 전체 자산 점유율은 전체부채의 약 3.66%이었으며, 약 96.3%의 자산은 35세 이상의 조사대상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자산을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살펴볼 경우 총자산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총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35세 미만 응답자의 경우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세 이상 응답자의 총자산대비 실물자산의 비중 (60.66%)보다 낮았으며, 모든 가계의 총자산대비 실물자산의 비중 (58.95%)보다 낮았다. 반면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은 모든 가계의 총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율 (41.04%) 및 35세 이상 응답자의 총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39.33%) 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보유여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5세 미만의 응답자 중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30.90%이었으며, 전세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33.27%이었다. 반면 35세 이상의 응답자중 자가를 보유하는 비율은 약 62.09%, 전세의 경우 약 15.90%이었다.

〈표 3〉 자산관련 비율

(단위: %)

	35세 미만 청년가계 (N=1,261)	35세 이상 가계 (N=17,379)	전체 가계 (N=18,640)
자산점유율	3.66	96.33	100.00
자산관련비율			
총자산대비실물자산 <sup>1</sup>	35.55	60.67	58.95
총자산대비금융자산 <sup>2</sup>	64.45	39.33	41.05
합계	100.00	100.00	100.00

<sup>1</sup>실물자산=부동산+기타실물자산

<sup>2</sup>금융자산=저축액+현거주지전월세보증금

### 3. 조사대상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한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전체조사대상자의 가계부실위험지수 (Household Default Risk Index; HDRI) 및 HDRI를 추정하기 위한 청년차입자의 자산부채 부채비율 (DTA)과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 (DSR)을 함께 제시한다. 가계 부채와 비율을 분석하는 만큼 가계부채를 보유한 차입자 만을 대상으로 하고, 35세 미만의 청년차입자와 35세 이상의 차입자들의 비율을 제시한다.

자산부채 부채비율 (DTA)은 총자산 대비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의 임계치는 총부채가 자산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인 1로 설정하였으며, 개별가구의 DTA가 이러한 임계치 수준인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35세 미만 청년차입자의 DTA의 평균은 0.41, 중앙값은 0.32이다. DTA 기준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계의 비율의 경우 청년층의 부실화가능성이 높은 가계는 4.39%이었으며, 35세 이상의 차입자의 경우 4.55%이었다. 원리금상환비율 (DSR)은 이자비용차감 전 처분가능소득 중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이 높은 가운데 채무상환의 요구가 집중될 경우 실물자산의 처분 없이는 단기간에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가구를 식별할 수 있다. 35세 미만 청년차입자의 DSR의 평균은 0.38이었으며, 중앙값은 0.17이었다. DSR 기준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계의 비율의 경우 35세 미만 청년차입자의 경우 24.3%, 35세 이상 차입자의 경우 22.4%가 이에 해당되었다. 가계의 소득, 금융, 실물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계부실위험지수 (Household Default Risk Index; HDRI)를 분석한 결과 35세 미만 청년차입자의 HDRI는 평균 0.41이었으며, 중앙값은 0.27이었다. 35세 이상 청년차입자의 HDRI는 2.27이었으며, 모든 가계의 평균적인 HDRI는 2.13이었다. HDRI 기준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계의 비율의 경우 전체 가계 중에서 부실화가능성이 높은 가계는 6.89%이었으며, 35세 미만 청년차입자의 경우 6.27%, 35세 이상 차입자의 경우 6.94%이었다. 이러한 지표들의 결과가 35세 미만 청년 차입자와 35세 이상의 차입자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카이제곱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유의확률  $\alpha = .05$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표를 계산

하기 위한 총부채, 총자산, 가처분소득, 원리금상환액을 35세 미만 집단과 35세 이상 집단으로 나누어 측정된 결과 (표에 제시하지 않음) 35세 미만 차입자의 부채 및 부채상환액은 35세 이상 차입자의 약 69% 및 80%이었으며, 35세 미만 차입자의 자산 및 가처분소득은 44%, 78%이었다. 이러한 비율을 감안하여볼 때 HDRI가 100%를 넘는 부실위험이 높은 차입자가 많은 주요한 원인은 무엇보다 청년 차입자의 자산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가계부채 보유여부 및 점유율

	35세 미만 청년가계 (N=1,261)	35세 이상 가계 (N=17,379)	전체 가계 (N=18,640)
DTA <sup>1</sup>	0.41(0.32)*	2.11(0.19)	1.99(0.21)
DSR <sup>2</sup>	0.38(0.17)	0.53(0.14)	0.52(0.14)
HDRI <sup>3</sup>	0.41(0.27)	2.27(0.16)	2.13(0.17)
DTA > 1	4.39%	4.55%	4.54%
DSR > 0.4	24.31%	22.38%	22.52%
HDRI > 1	6.27%	6.94%	6.89%

\* 중앙값

<sup>1</sup> Debt to Asset Ratio: 총부채 대비 자산평가액 비율

<sup>2</sup> Debt Service Ratio :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sup>3</sup> Household Default Risk Index : 가계부실위험 지수

#### 4. 부실화 가능성 결정 모형의 추정결과

HDRI를 활용한 부실화 가능성 결정모형의 추정 결과를 〈표 5〉과 〈표 6〉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청년차입자와 전체 차입자들의 부채 부실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상이하였다. 청년 차입자들을 대상으로 부실화 가능성 결정모형을 추정된 결과는 〈표 5〉에 시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재무적 특징의 경우 가처분 소득과 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alpha=.001$  수준에서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는 변수이었다. 또한 소비지출 중 교육비는  $\alpha=.005$  수준에서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을 높

이는 변수이었다. 그 외 소비지출 항목과 자산은 청년차입자의 부채부실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었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특징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과 같은 특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35세 미만 청년차입자의 부실화 가능성 결정모형의 추정결과

변수		Estimates	S.E.	Odds	
인구 사회 학적 특징	남성 (여성)	-1.36	1.38	0.25	
	기혼 (미혼,별거,사별)	-0.80	1.99	0.44	
	대출이상 (초출,중출,고출)	0.05	1.15	1.06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자영업자/기타)	0.26	1.14	1.29	
	가족원의 수	0.70	0.64	2.01	
	재무적 특징	ln(가처분소득)	-2.19 ***	0.73	0.11
		ln(자산)	0.26	0.52	1.30
		가계지출			
		ln(식료품)	0.34	0.99	1.41
		ln(주거비)	0.82	0.86	2.28
ln(교육비)		1.08 **	0.55	2.97	
ln(의료비)		-1.04	0.56	0.35	
ln(교통비)	0.25	0.63	1.29		
ln(기타지출)	0.75	1.08	2.12		
Intercept	-3.38	9.16			

\*  $p<.05$ ; \*\*  $p<.01$ ; \*\*\*  $p<.001$

35세 이상 차입자들을 대상으로 부실화 가능성 결정모형을 추정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근무형태가 유의미한 변수이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승산비 (odds ratio)가 0.559이었으며, 이는 상용근로자의 부채부실화 가능성이 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부채부실화 가능성의 약 56%에 불과하므로, 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와 같은 근무형태의 차입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보다 부채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무적 특성 중에서는 가계의 가치분소득, 자산, 주거비와 같은 소비지출이 유의미한 변수이었다. 특히 가치분 소득과 자산은 차입자의 부채부실화 가능성을 낮추는 변수이었으며, 주거비와 같은 소비지출은 차입자의 부채부실화 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었다.

〈표 6〉 35세 이상 차입자의 부실화 가능성  
결정모형의 추정결과

변수		Estimates	S.E.	Odds
인구 사회 학적 특징	남성 (여성)	0.29	0.34	1.349
	기혼 (미혼, 별거, 사별)	-0.60	0.37	0.544
	대출이상 (초졸, 중졸, 고졸)	0.39	0.20	1.477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자영업자/기타)	-0.58 ***	0.19	0.559
	가족원의 수	0.21	0.11	1.245
재무적 특징	ln(가치분소득)	-0.90 ***	0.14	0.403
	ln(자산)	-0.64 ***	0.07	0.527
	가계지출			
	ln(식료품)	0.17	0.20	1.194
	ln(주거비)	0.35 **	0.15	1.429
	ln(교육비)	0.15	0.09	1.172
	ln(의료비)	0.10	0.08	1.109
	ln(교통비)	0.11	0.13	1.125
	ln(기타지출)	0.10	0.19	1.11
Intercept	4.71 ***	1.53		

\*  $p < .05$ ; \*\*  $p < .01$ ; \*\*\*  $p < .001$

## V. 결론 및 제언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인 누증과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

다. 이러한 관심은 가계부채관련 선행연구들이 대출 금리 인상과 같은 외부적 충격에 노출될 경우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차입자들을 식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취약 차입자 집단은 ‘취약차주’, ‘부실위험가구’ 등의 다양한 가구로 분류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의 안정성이 낮거나, 소득이나 자산 대비 부채 상환액 혹은 부채의 규모가 클 경우 이러한 취약 차입자 집단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대두된 시점에서 취약 차입자의 일반적인 경향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특징이나 재무적 특징을 가진 차입자가 가계부채 부담으로 부실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고 사료된다. 특히 최근 경제악화와 취업 난 속에 청년층의 부채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년부채의 양적 증가는 청년층 가계의 신용도 하락에 영향을 미치며, 악화된 신용으로 인하여 제도권의 금융을 이용하는 대신 고금리의 제2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게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청년층의 채무조정, 개인회생 신청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 자산, 부채를 포함하는 가계수준의 미시자료인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청년 차입자들의 가계부채 부실화 정도를 진단하고, 부실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가계를 청년층 집단 (19세 이상 35세 미만)과 비청년층 집단 (3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가계의 부채보유여부 및 부실화 정도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어떠한 청년차입자가 가계부채 부실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를 분석함으로써 청년층의 가계부채의 문제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차입자들을 중심으로 최근 등장한 가계부실 위험지수(HDRI)를 활용하여 가계부채 부실화 정도를 진단하고,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

인을 분석하여, 청년 차입자들 중 가계부채 취약집단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주로 분석한 청년층의 경우 35세 미만 청년의 약 63%가 부채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가계의 평균적인 수준인 약 60% 보다는 다소 높은 부채보유율을 보여주었다. 부채의 규모면에서 청년 차입자가 보유한 부채가 전체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계부채 점유율은 전체부채의 약 5%로 높지 않으므로,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가구부채 중 이들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2018). 또한 일반적으로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신용 사용이 처음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최근 들어 실물 및 금융자산 대비 부채가 많아 소득변동 및 금리변동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 차입자와 그 외 연령대의 가계의 자산부채 부채비율 (DTA), 원리금상환비율 (DSR), 가계부실 위험지수 (HDRI)은 차이가 존재하였다. 각 지표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5세 미만 청년층의 DTA, DSR, HDRI는 각각 0.41, 0.38, 0.41이었으며, 35세 이상 차입자의 DTA, DSR, HDRI는 각각 2.11, 0.53, 2.27 이었다. 평균적으로 청년층의 수치는 그 외 연령대의 DTA, DSR, HDRI 평균보다 낮았다. 단, 여기서 해석상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35세 이상의 차입자의 경우 자료에 상대적으로 과대한 정도의 극단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35세 이상 차입자의 경우 DTA값이 5,200, DSR값이 536, HDRI값이 7,033인 극단치가 존재한다. 이러한 극단치는 청년 차입자의 경우 DTA의 극단치가 7.6, DSR의 극단치가 10.9, HDRI의 극단치가 9.0인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큰 극단치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이러한 경우 35세 이상의 차입자 집단의 수치가 과대추정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더 적당한 대푯값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집단 간 지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평균

값 뿐 아니라 중앙값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앙값을 비교하자면 청년 차입자의 DTA, DSR, HDRI의 중앙값은 35세 이상 차입자의 경우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경우 청년차입가계는 35세 이상 차입자 가계와 비교하여, 예상하지 못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자산을 이용한 소비평활화가 어렵다거나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에 있어 취약할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극단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를 정상범위를 볼것인지를 정해야 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극단치로 간주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정상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극단치를 제외하면 데이터의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변수는 연구모형에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므로 극단치를 제거하지 않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계부채 부실화 정도는 청년 차입자와 35세 이상 차입자 간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은 차입자 가구의 연령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입자 가구의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차입자의 재무적 특성 및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부채부실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자산부채 부채비율 (DTA)과 원리금상환비율 (DSR)을 고려한 합성함수 지표인 가계부실 위험지수 (HDRI)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차입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인구사회학적 변수, 재무적 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로서는 가구주의 성별, 가족구성, 교육수준 등을 포함하였고, 가계의 경제적 변수로서 가처분소득, 자산상태, 소비지출 등을 포함하였다.

넷째, 다변량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35세 이상 차입자들을 대상으로 부실화 가능성 결정모형을 추정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근무형태가 유의미한 변수이었다. 일용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와 같은 근무형태의 차입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보다 부채부실화 가능성이 높았다. 재무적 특성 중에서는

가처분 소득과 자산은 차입자의 부채부실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변수이었으며, 주거비와 같은 소비지출은 차입자의 부채부실화 가능성에 증가시키는 변수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김진아(2010)의 연구에서 금융자산이 부채 보유확률에 부적인 효과를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였다. 한편 청년 차입자들을 대상으로 부실화 가능성 결정 모형을 추정한 결과, 청년 차입자의 재무적 특징인 가처분 소득과 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청년 차입자 가구의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는 변수이었다. 또한 소비지출 중 교육비는 청년 차입자 가구의 부실화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김우영·김현정(2009)의 연구에서 교육비의 부담이 증가할수록 부채보유확률 및 부채규모가 증가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기 가계의 인적자본투자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미래 소득과 삶의 질과 연관이 된다(김형만·전재식·신동균, 2007)는 점에서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청년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차입은 미래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통계청의 2016년 주택소유통계 결과(통계청, 2016) 연령별 주택 소유자 현황을 살펴보면 50대의 약 26%가 자가를 소유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40대 약 25%로 40-50대 연령층이 전체 자가 소유자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또한 60대 약 18%, 30대의 약 14%, 70대의 약 10%의 순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34세 이하의 차입자보다는 35세 이상의 차입자가 주거관련 비용을 보다 더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며 청년차입자와 35세이상 차입자 간 주거관련 비용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고 풀이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차입자를 위한 제언, 후속 연구자를 위한 제언 및 정책입안자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차입자들을 위한 제언으로 차입자의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

성은 연령 뿐 아니라 가처분소득, 자산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 차입자는 자신의 현재 및 미래에 가능한 소득과 자산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차입 계획과 상환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가령 정부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고용 등 청년과 관련된 맞춤형 재무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하거나, 금융시장의 변화를 인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불법적 사채, 자극적인 금융광고에 현혹되어 과잉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차입한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e.g. 상환방법, 상환기간, 이자율)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을 수준에서 차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후속연구자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 부채부실화 가능성은 전체 가계에 비하면 크지 않은 비율이다. 이러한 경우 하나의 범주에 속한 데이터의 수가 다른 범주에 속한 데이터의 수보다 극히 많거나 작음(장영식·김종우·허준, 2008) 데이터의 불균형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를 바탕으로 부실위험가계를 식별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수가 해당하지 않은 데이터의 수보다 극히 작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자가 존재할 경우 데이터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존재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표본추출과 오분류 비용에 근거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들을 통하여 불균형 정도가 해소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결과와 비교를 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정책입안자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한영섭(2015)은 〈서울시 청년허브 기획연구〉에서 청년 부채문제의 원인을 학자금 대출로만 귀결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경계하였다. 또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청년부채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게 하여 오히려 청년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였다. 왜냐하면 청년 부채문제는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발생할 수도 있으며, 대학을 가지 않은 비진학 청년들에게서도 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년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의 증가는 청년차입자의 부실화가능성을 높이는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청년 차입자의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는 하나의 주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년차입자의 가처분 소득이 그들의 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는 변수인 만큼 정부는 청년 차입자들이 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과 현장 경험 확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현재 한국 정부는 청년 고용정책 추진을 위해 3조 1,000여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청년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고용추가장려금(2+1),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하기도 하였다(김유빈, 2018). 따라서 이러한 청년고용문제의 해소를 위한 조치들이 청년층의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우영·김현정(2009).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380호.
- 2) 김유빈(2018). 청년고용의 현황 및 대응방안. 월간노동리뷰, 3월호, 9-22.
- 3) 김진아(2010). 가계특성을 반영한 가계부채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재원·권순만(2014). 지역별 고용불안정이 청년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30(2), 117-141.
- 5) 김철중(2013.09.03). 투자전략 Daily. 한국투자증권. 2013.9.3. [http://img2.surenet.co.kr/\\_upload/board/201309/130903\\_tf.pdf](http://img2.surenet.co.kr/_upload/board/201309/130903_tf.pdf)
- 6) 김현정(2010).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과 민감도 분석. 한국경제포럼, 3(3), 77-94.
- 7) 김형만·전재식·신동균(2007). 청년층 인적자원개발: 거시적 전망과 인적자본투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8) 금융위원회(2017a). 가계부채 종합대책. <https://www.fsc.go.kr/downManager?bbsid=BS0030&no=120739>
- 9) 금융위원회(2017b).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방향 보도자료. <http://m.fsc.go.kr/01Sub/001Sub/bodoData.do?FLAG=VIEW&CPAGE=1&NUM=32137>
- 10) 나라지표(2018). 가계신용동향.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076](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076)
- 11) 남상호(2015). 우리나라 가계 소득 및 자산 분포의 특징. 보건복지 Issues & Focus.
- 12) 노혜민·손상희(2017). 청년층 소비자의 신용등급관리역량에 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3(2), 1-27.
- 13) 문화일보(2018.6.11). 창업취업 세제지원 ‘청년 나이 34세’로. <https://news.v.daum.net/v/20180611141034648>
- 14) 박인수·박창수(2018). 일반가계부채 가구와 한계가구부채 가구의 부채 연체의 결정요인 비교 분석. 산업경제연구, 31(3), 1113-1133.
- 15) 박연우·허석균(2018). 가계부채 결정요인과 부채부담취약계층의 재무곤경 및 신용위험 분석. 금융정보연구, 7(1), 1-31.
- 16) 배장섭(2003). 혼합모형을 이용한 예측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전산 통계학

- 협동과정 의화통계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17) 송원영(2017). 금리상환 혼합형대출 현황과 활성화 여건 마련에 대한 소고. *주택금융월보*, 154, 1-27.
  - 18) 신윤정 · 권지용 · 정준영 · 김민수 · 황서연 · 한영섭 · 송효원(2015). <서울이 만드는 다음 세대의 여지, 청년이 만드는 다음 사회의 공공: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 서울특별시/서울시 청년허브.
  - 19) 아시아경제(2018.06.22). [대한민국 부채보고서] '빚' 썸(SOME)의 청춘.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plus1&idxno=2018062212095556888&pidx=2018062213522552480A>
  - 20) 이동걸 · 전성인 · 정재욱 · 변동준(2013). 국내 부채보유가구의 연체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13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21) 이동진 · 한진현(2017). 종합적 상환여건을 반영한 과다부채 가계의 리스크 요인 분석. *BOK경제연구*, 2917-12호 요약.
  - 22) 이종희(2018). 소득계층별 한국 차입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1), 63-78.
  - 23) 유재술 · 안정근(2013).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가능성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 *지적과 국토정보*, 43(2), 237-251.
  - 24) 윤성훈 (2018). 가계부채 연착륙과 경제성장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KRI리포트 이슈분석.
  - 25) 연합뉴스(2018.10.7). 1천 500조 가계부채 2금융권, 취약계층부터 부실화 조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05/0200000000AKR20181005179900002.HTML?input=1195m>
  - 26) 장영식 · 김종우 · 허준(2008). 유전자 알고리즘을 활용한 데이터 불균형 해소 기법의 조합적 활용. *지능정보연구*, 14(3), 133-154.
  - 27) 장재민 · 이승봉 · 이영인(2018). Study on traffic accidents characteristics by using driver and city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 20(2), 97-107.
  - 28) 정성호(2017). 정부재정통계 체계에 관한 국제 기준 탐구. 월간 나라재정 2017년 4월호.
  - 29) 최효미 · 유해미 · 김지현 · 김태우(2016).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연구보고 2016-19.
  - 30) 통계청(2016).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6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 31) 통계청(2018a). 2018년 가계금융 · 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2146](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2146)
  - 32) 통계청(2018b). 통계설명자료.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confmNo=930001>
  - 33) 한국은행(2015). 금융안정보고서. ISSN 1975-6607, 1-254.
  - 34) 한국은행(2016). 금융안정보고서. ISSN 1975-6607, 1-127.
  - 35) 한국은행(2017).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향.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897/view.do?nttId=233119&menuNo=200788&pageIndex=1>
  - 36) 한국은행(2018.09.18). 금융안정 상황(2018년 9월) 보도자료.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47268&menuNo=200690&pageIndex=1>
  - 37) 한국은행(2018). 세대별 가계부채의 특징 및 시사점.
  - 38) 한영섭(2015). 청년층 부채악성화 경로추적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청년연대은행 토담 부실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보고서.
  - 39) 현대경제연구원(2017).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17-20(통권 745호).
  - 40) 현대경제연구원 (2018).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대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18-07



- (통권 782호).
- 41) MK증권(2017). 다주택자 대출 한도 크게 준다.  
가계부채 대책 발표. <http://vip.mk.co.kr/news/view/21/31/88819.html>
- 42) Ando, A. & Modigliani, F. (1963).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 투 고 일 : 2019년 02월 27일
- 심 사 일 : 2019년 03월 27일
- 게재 확정일 : 2019년 05월 23일